

통독 후 KfW의 대동독 인프라(SOC)금융 업무 분석과 시사점

〈목 차〉

- I. KfW의 개요
- II. 통독 후 KfW의 통일금융 업무
- III. 통독 후 KfW의 대동독 인프라금융 업무
- IV. 시사점

I KfW의 개요

▶ 현황

- KfW(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)는 '48년에 설립되어 6개의 연결자회사를 거느린 'KfW금융그룹'으로 발전
 -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경제 복구, 유럽부흥계획(ERP, European Recovery Program)에 따른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
 - '02년 EU집행위원회와 독일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합의 이후 정책·상업영역이 분리된 현재의 모습으로 재편
 - 지분구조는 연방정부가 80% 지방정부가 20% 소유하고 있으며 장기채권 발행이 주 조달원

* 본고는 박이현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,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

통독 후 KfW의 대동독 인프라(SOC)금융 업무 분석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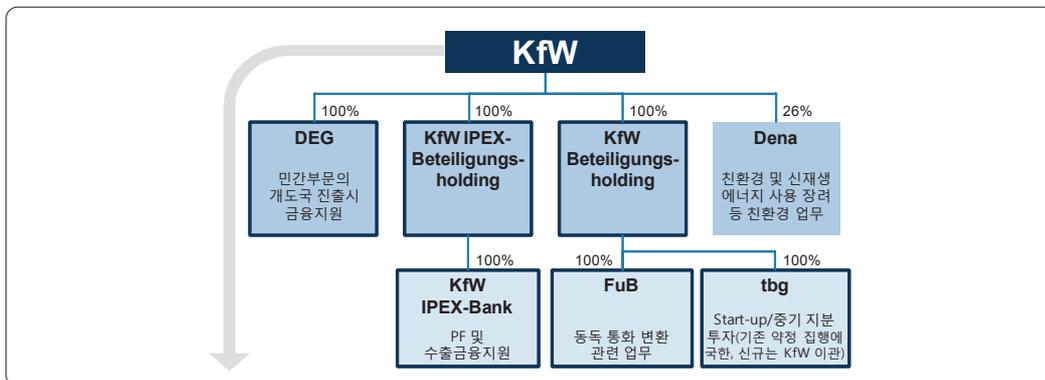
KfW의 시대별 주요 연혁

| 연대 | 주요활동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50년대 | ○ 전후 독일 재건 지원업무의 성공적 수행 - '50년대 초반에는 1차 산업 위주의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 - '50년대 중반부터 수출금융 등 상업 활동 지원에 주력 |
| '60년대 | ○ 해외 진출 본격화 - '61년 KfW법 개정으로 해외관련 업무 확대에 집중 |
| '70년대 | ○ Oil Shock 이후 국내 사업 및 SME 지원 강화 - Oil Shock 이후 국내 사업(에너지절감사업 등) 비중 확대 - '71년 중소·중견기업 지원 SME Programme 개시 |
| '80년대 | ○ 국내사업 확대 지속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향 전환 -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금융협력으로 전환, 컨설팅 업무 확대 |
| '90년대 | ○ 통일 이후 동독지역 개발 지원 - 동독 주택 및 인프라 건설, SME 지원에 주력 - '94년 Staatsbank Berlin(舊동독의 공공부문 지원 담당은행) 인수 |
| '00년~ | ○ 獨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 - '01년 DEG 지분을 연방정부로부터 인수 - '03년 Deutsche Ausgleichsbank(DtA, 독일조정은행)와 합병 - '08년 KfW IPEX-Bank를 자회사로 분리 |

자료 : www.kfw.de

▶ 주요업무 및 조직현황

- KfW의 사업영역은 4개 사업부로 구성
 - 기존에는 KfW가 5개의 사업영역(Mittelstandsbank, Privatkundenbank, Kommunalbank, Capital market-related financings, Entwicklungsbank)으로 구분되었으나 '13년 중 4개 영역으로 재편



| 사업영역 | 주요활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Mittelstandsbank (중소기업 사업부) | - 중소·신생기업, 에너지사업 등 업무 |
| Kommunal- und Privatkundenbank/ Kreditinstitute (지역·개인·금융기관 사업부) | - 주택건설·현대화, 교육, 인프라 등 업무 -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리파이낸싱 |
| Capital Markets (자본시장 사업부) | - 자금조달, ABS 투자, 민영화 대행 |
| Entwicklungsbank (개발 원조 사업부) | - 연방정부 대신 개발도상국·체제전환국 업무 |

주 : 1) 기준시기: '13년말 기준

2) 주요 자회사만 표시(테두리 상자 안에 있는 6개 자회사는 연결대상)

자료 : 산업은행

II

통독 후 KfW의 통일금융 업무

1. 실적

▶ 검토 기준

- 자금공급의 경우 통독 후 15년간을 기준으로 검토
 - 통독 후 15년 이후는 통일금융 의미가 희석

▶ KfW의 통일금융 업무 실적

- KfW는 통독 후 15년간 동독에 1,304억 유로를 지원
 - KfW의 통일금융 업무는 중소기업 업무, 주택사업 및 현대화업무¹⁾, 지자체 인프라 업무, 환경사업 업무로 구분
 - 업무 규모는 통독 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며 10년간('90~'99년)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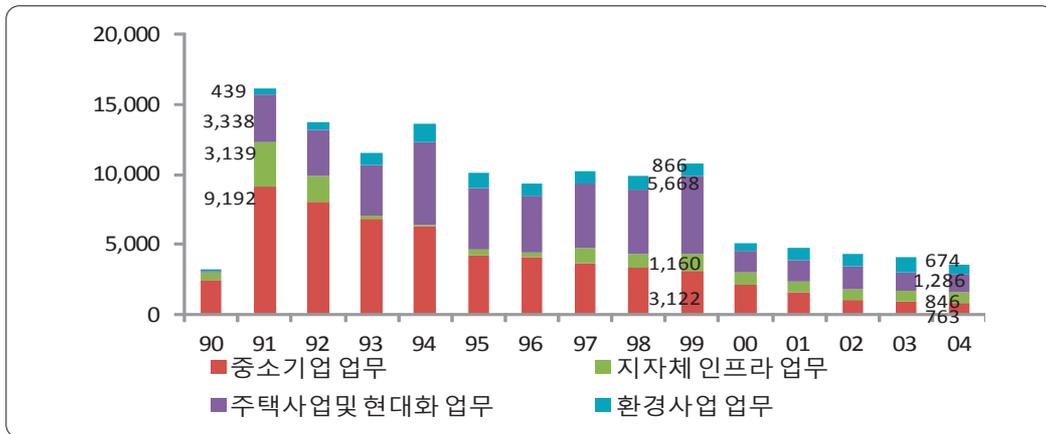
1) 주택사업 및 현대화 업무란 주택의 신축, 증축 및 개보수를 의미하며 외관공사와 외관인테리어를 포함

2) KfW는 베를린장벽 붕괴('89.11월) 이후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금융업무 통계 기준이 '90년부터 산출

- 연평균 108억 유로(서독 GDP 대비 약 0.4%³⁾)
- 시기별로 시행한 프로그램⁴⁾에 따라 금융 규모 차이가 큼
 - '00년부터 프로그램의 축소로 통일금융 규모가 급감

KfW의 연도별 통일금융 업무 규모

(단위 : 백만유로)



자료 : KfW(2005), '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'

<참고> 독일의 통일비용

-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년간 통일 비용은 1조 4000억 유로
 - KfW는 15년간 1,304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통독비용의 약 9%
- 연방 건설교통부의 구체적 자료에 따르면 13년('91~'03년)⁵⁾ 간 1조 2800억 유로 (약 1,920조원)이며 동독의 수입을 제외한 순이전지출은 9,800억 유로
 - 연 평균 985억 유로(약 150조원) 수준으로 서독 GDP 대비 약 4%를 매년 동독 지원 자금으로 투입⁶⁾

3) 서독 GDP는 '89년 22,240억 DM, '90년 24,260억 DM, 환율은 '89년 1유로=2.0241마르크, '90년 1유로=2.042마르크

4) 프로그램이란 대출상품을 의미하며 분야(환경, 주택사업, 지자체 인프라, 중소기업)별로 2~3개의 프로그램이 존재

5) 동서독 정부간 통합은 통일조약 체결일인 '90.10월로 정부의 공식적 금융지원 통계는 '91년부터 산출하며, 이 비용에는 민관협력사업과 1회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

6) 손기웅, "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", 통일경제 통권 제 100호, 현대경제연구원, 2010 여름

독일 통일비용 ('91~'03)

(단위 : 십억유로, %)

| 구분 | 내용 | 금액 | 비율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인프라재건 | 도로·철도·수로 개선, 주택주 ¹⁾ 및 도시건설 | 160 | 12.5 |
| 경제활성화 | 지역경제 활성화, 투자보조, 농업구조 개선 등 | 90 | 7.0 |
| 사회보장 | 연금, 노동시장 보조, 육아보조 등 | 630 | 49.3 |
| 임의기부금 | 독일통일기금, 판매세 보조, 연방보조 지급금 등 | 295 | 23.0 |
| 기타 | 인건비, 국방비 지출 | 105 | 8.2 |
| 총 이전지출 | | 1,280 | 100 |
| 구동독수입 | | 300 | 23.4 |
| 순이전지출 | | 980 | 76.6 |

주 : 1) 광의의 인프라에는 주택업무 및 환경업무가 포함되지만, 본 보고서에서의 인프라는 KfW가 분류하는 사회간접자본(협의의 인프라)을 분석

자료 : 국정원(2009) "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 통일 20년"

2. 재원조달

▶ 검토 기준

- 통독 후 KfW의 재원조달은 '90~'98년까지 9년을 기준으로 검토
 - '99년 이후는 유로화 시행으로 통일 이외의 다양한 요소 개입

▶ 조달 방법

- '90~'98년까지 총 3,149억 마르크를 조달 하였으며 '90~'96년까지는 조달 규모가 대동소이 하지만 '97, '98년에 규모가 급증
 -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총 2,607억 마르크(83%) 조달하였으며 '93년 이후 비중이 급증
 -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총 542억 마르크(17%) 조달하였으며 연평균 60억 마르크 내외 조달

KfW의 연도별 자금조달 추이('90-'98)

(단위 : 십억마르크, %)

| | '90 | '91 | '92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| '98 | 계 (비중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총자금조달 | 24.2 | 34.9 | 35.3 | 20.8 | 26.8 | 28.2 | 30.4 | 44.7 | 69.6 | 314.9 |
| 연방예산, ERP ^{주1)} | 5.4 | 7.6 | 7.5 | .9 | 5.4 | 5.4 | 5.2 | 5.7 | 6.1 | 54.2 (17) |
| 자본시장조달 | 18.8 | 27.3 | 27.8 | 14.9 | 21.4 | 22.8 | 25.2 | 39 | 63.5 | 260.7 (83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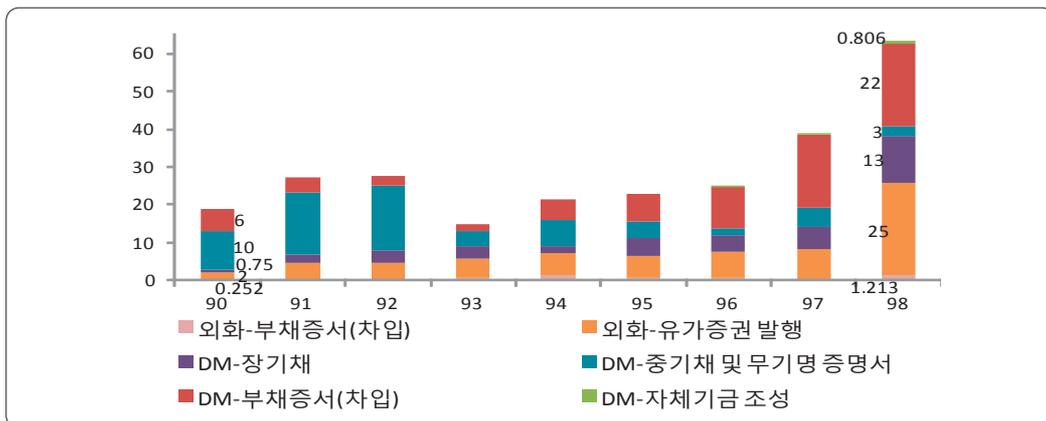
주 : 1) 유럽부흥계획 기금

자료 : KfW, Annual Report, 각 연도

- KfW의 국내외 자본시장 차입 중 외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
 - '90~'98년 동안 728억 마르크(28%)를 외자로 조달
 - 유가증권 발행(직접금융)이 차입(간접금융)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
- 유가증권 발행은 '92년까지는 무기명증서를 통해 주로 조달하였으나 점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짐
 - 중기채 및 무기명증서 내역: 소규모 채권, 만기 3~10년
 - 장기채 내역: 대규모 채권, 주된 채권이 만기 10년

KfW의 국내외 자본시장 차입 추이

(단위 : 십억마르크)



자료 : KfW, Annual Report, 각 연도

※ 붙임 1 구체적인 수치는 KfW의 국내외 자본시장 차입내역 참조

<참고> KfW의 재원조달 수단

- KfW의 채권은 독일정부의 지급보증으로 '95년도 신용평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'AAA등급'의 높은 신용도 유지
 - KfW는 수신기능이 없어 재원조달은 장기채에 의존

KfW의 신용등급

| 구분 | 채권 종류 | Fitch | Moody's | S&P | BCA주1) |
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KfW | 장기채 | AAA | Aaa | AAA | 보증 없는 경우 무의미 |
| | 단기채(CP) | F1+ | P-1 | A-1+ | - |
| 독일 | | AAA | Aaa | AAA | - |

주 : 1) Baseline Credit Assessment: 정부 지원 감안하지 않은 경우 조정등급, 참고로 KfW Ipe: Baa3
 자료 : Moody's credit opinion('95~'13)

- KfW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비과세, 무배당,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 제외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이익유보금을 재투자 또는 적립

III 통독 후 KfW의 대동독 인프라금융 업무

1. 실적

▶ 검토 기준

- II장 1. 실적과 마찬가지로 통독 후 15년간을 기준으로 검토

▶ 대동독 기간별 인프라금융 업무

-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앞 투자자금 대출 형식으로 지원
 - 초기에는 정부의 금리 보전을 통해 동독 소재 지자체 등에 대출

통독 후 KfW의 대동독 인프라(SOC)금융 업무 분석과 시사점

- 중기 및 후기에는 KfW자체 자금으로 하수관리,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동독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

KfW의 기간별 인프라금융 업무 분류 ('90~'04)

(단위 : 백만마르크)

| 기간 | 구분 | 대출 프로그램명 | 재원 | 대출규모 | 설명 |
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90~ '92 | 초기 | Kommunalkredit (지자체 대출) | 정부요청 + 이차보전 | 6,361 | 물 공급, 폐수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투자 |
| '92~ '95 | 중기 | KfW-Kommunalkredit (KfW-지자체 대출) | 정부지시 + 자체자금 | 478 | 상기프로그램에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추가 |
| | | Abwasserentsorgung Sachsen-Anhalt ^{주1)} (Saxony-Anhalt 폐수관리) | | 350.2 ^{주2)} | 작센- 안할트 주의 폐수 관리 프로젝트 투자 |
| '95~ '04 | 후기 | KfW-Infrastruktur (KfW-사회기반시설) | 자체상품 + 자체자금 | 15,841 ^{주2)} | 물 공급, 공기 오염 관리, 소음관리, 수압기술과 송수,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|
| | | 총계(베를린 포함) | | 23,030 ^{주3)} | |

주 : 1) '93~'04까지 Saxony-Anhalt주 폐수의 특별 관리차원에서 프로그램 실시

2) '99년 및 '00년은 '98년도 환율 1 마르크=1.9558 유로로 환산

3) 공식 통계상 13,866백만 유로

자료 : KfW(2000), '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'

※ 붙임 2 초기, 중기, 후기 프로그램 상세내용 참조

▶ 대동독 인프라금융 업무 실적 및 비중

- 인프라금융 업무는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나타남
 - 통독 직후 3년 동안은 공급액이 많았으나 '00년대 이후 약 8억 유로 유지

KfW의 대동독 인프라금융 추이 ('90~'04년)

(단위 : 십억유로, %)

| 년도 | '90 | '91 | '92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금액 | 0.5 | 3.1 | 1.8 | 0.2 | 0.08 | 3.4 | 3.6 | 1.0 | 1.0 | 1.1 | 0.8 | 0.7 | 0.7 | 0.7 | 0.8 |
| 비중 | 17 | 19 | 13 | 2 | 1 | 3 | 4 | 1 | 11 | 11 | 18 | 16 | 17 | 19 | 24 |

자료 : KfW(2005), '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'

- 지자체 인프라 금융업무는 전체 통일금융 규모의 약 10%를 점유
 - 15년('90~'04)간 139억 유로

KfW의 통일 금융 규모와 비중 ('90~'04년)

(단위 : 십억유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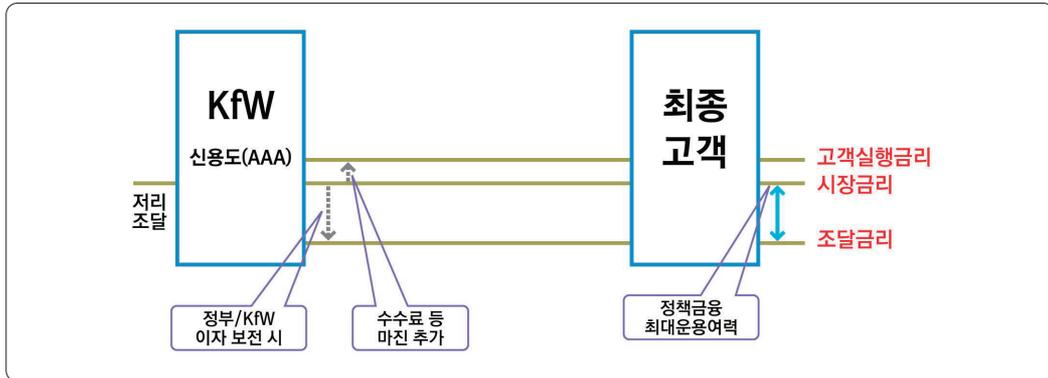
| 분야 | 금액 | 비중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중소기업의 설립, 운영 | 57.7 | 45 |
| 주택 건설 · 현대화 | 47.0 | 36 |
| 지자체 인프라 | 13.9 | 10 |
| 환경 | 11.8 | 9 |
| 총계 | 130.4 | 100 |

자료 : KfW(2005), '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'

2. 특징

▶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한 자원조달

- 초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인프라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금리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을 시행
 - 정부는 금리, 대출 대상 및 기간을 직접 지정
 - ex) '지자체대출프로그램'은 6.5%, 10년 고정금리로 연방정부가 규정



▶ 베를린국립은행(Staatsbank Berlin) 인수를 통한 업무 확충

- KfW의 경영이사회(Executive Board)는 동독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정부에 자금공급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인수 받음
 - 375명의 새로운 직원(베를린 본점 및 6개 사무소⁷⁾), 자기자본 22.5억 마르크와 자산 600억 마르크 취득
 - ※ 붙임 3 동독 국립은행의 해체와 재편도 참조
- KfW는 '94. 10월 베를린국립은행을 인수하여 베를린 지점을 통하여 동독 지자체 등에 대출
 - 베를린국립은행은 동독국립은행⁸⁾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성 용자기능을 분리·독립시킨 은행으로서 '90년에 100% 통독정부 귀속
 - 베를린국립은행의 주된 업무는 인프라금융 지원이었으며 부수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

▶ 지방자치단체 앞 '직접대출' 형식

- KfW는 통독 직후 인프라금융 업무시 채무자의 90%이상이 지방자치단체로 직접대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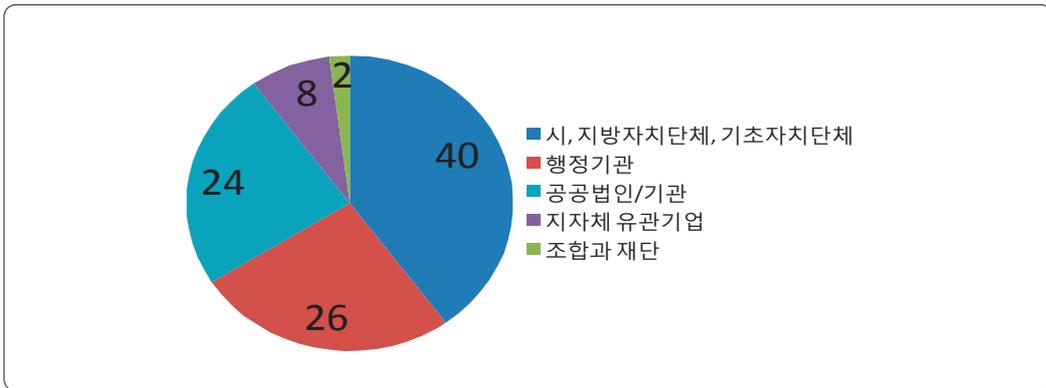
7) KfW는 '본점 단일체제'에서 동독에 베를린 지점과 사무소를 갖는 '본·지사체제' 구축하였으며, 그 후 EU 연락망으로 브뤼셀 지점을 설립하였고 '00년 DEG를 인수하면서 쾰른(Koeln), '03년에 DtA를 인수하면서 본(Bonn)에 지점 취득

8) 동독국립은행은 동독의 일원적 금융제도 하에 국가 소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을 통솔하는 은행

- KfW의 기본적인 대출방법은 KfW법에 의거한 온렌딩⁹⁾이나,
-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앞 금융, PF금융 업무시 직접대출 이용
 - 단, 지자체 유관기업(Municipal Enterprises) 및 사회적 기업(Social Enterprises) 앞 대출은 온렌딩 기반

KfW의 인프라금융 채무자 비중('90-'00)

(단위 : %)



자료 : KfW(2000), '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'

▶ 소규모 생활형SOC 위주 대출

- KfW는 통독 직후 약 15년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을 대형 PF대출¹⁰⁾ 보다는 소규모 대출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앞 제공
 - 정부의 직접적 예산지원과 달리 채무자인 지자체가 대출상환의무를 짐으로써 동독 지자체의 자본주의 의식 고양에 이바지
 - 동행의 인프라금융은 동독 각 주별 인구에 비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'90년대 각 주의 대출규모는 동독 인구 당 평균 774마르크에 해당

9) 온렌딩이란 정책자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, 주거래 은행에 해당하는 전대은행 혹은 벤처 케피털 등 중간 단계를 거쳐 채무자에게 자금 공급

10) Project Finance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조달 또는 금융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KfW의 경우 1953년 중장기 Export Finance 업무를 시작으로 70년대 선박, 항공기,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했으며, '90년대 PF 및 구조화 금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

동독 각 주별 지자체 인프라대출 업무('90~'00)

(단위 : 백만마르크, %, 마르크)

| 동독주 | 금액 | 업무비중 | 동독인구비중 | 인당 대출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
| Berlin | 3,366 | 23 | 20 | 980 |
| Sachsen | 3,205 | 22 | 26 | 696 |
| Sachsen-Anhalt | 2,721 | 19 | 15 | 981 |
| Brandenburg | 1,976 | 14 | 15 | 772 |
| Thüringen | 1,912 | 13 | 14 | 751 |
| Mecklenburg-Vorpommern | 1,301 | 9 | 10 | 704 |
| 총계(베를린 포함) | 14,481 | 100 | 100 | 774 |

자료 : KfW(2000), '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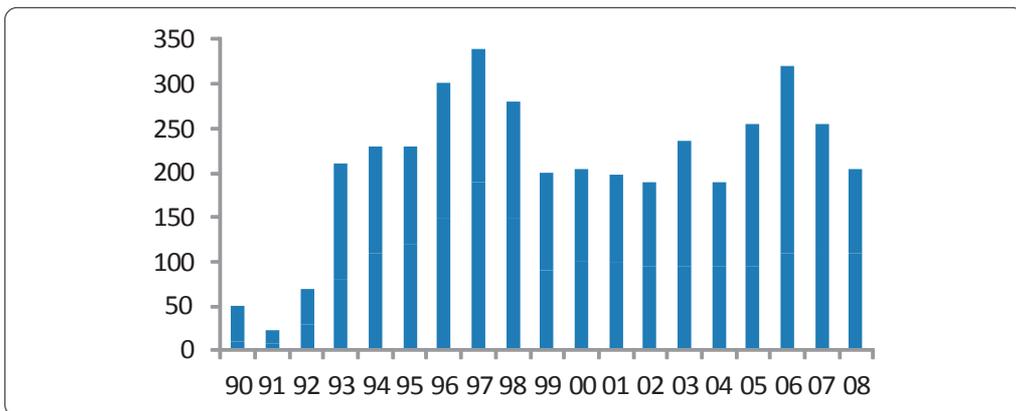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'90년대 후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시 민관협력 사업 방식(PPP)적용 시작
 - 전 세계적으로 '90년대 중반부터, 독일의 경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PPP 사업 시작
 - 따라서 KfW는 통독 초기에 PPP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못함

<참고> 민관협력사업(Public Private Partnership, PPP)

- (논의 배경) PPP에 대한 논의는 공공 인프라건설과 깊은 관련 있음
 - '80년대 말부터 민영화 및 경영원리에 의한 자유화 추진
 - '90년대에 들어 민간참여에 의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급증

인프라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추이

(단위 : 건수)



자료 : World bank and PPLAF, PPI Database

- (PPP 개념) PPP 개념의 형성 과정은 인프라(infrastructure)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공통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음
 - ① 공공서비스의 제공 ②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최소한 2개 이상의 파트너 ③ 공공과 민간부문이 계약에 의한 공동 투자 ④ 공공과 민간부문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시너지효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함
- (독일의 PPP 현황) 독일에서는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(BMZ)가 '99년에 PPP 프로그램을 시작
 -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(GTZ)가 '09년까지 총 70개의 파트너 국가에서 1,000개 이상의 PPP사업을 진행
 - '99년부터 '10년까지의 섹터별 PPP사업 분포를 보면 경제 개발이 37.9%, 환경 분야가 18.4%, 농업 분야가 12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
자료 : 경희대학교 · 한국국제협력단(2011), '효과적인 공공-민간 파트너십사업 모델 연구'

IV 시사점

- 통독 후 KfW의 통일금융 업무는 중소기업 업무와 주택사업 및 현대화 업무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자체 인프라 업무는 약 10%에 불과
 - 철도, 도로 등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감안할 경우, 남북 통일시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인프라금융 업무 비중이 높을 것 예상되나,
 - 북한 주민의 실생활 개선을 위해 KfW의 생활형 인프라 금융 업무 참고 필요
- KfW는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동독 생활에 적합한 인프라 금융 업무 시행이 가능
 - 동독과 같이 일원적 은행시스템¹¹⁾을 갖춘 북한의 경우, 공공부문 자금지원 전담은행을 분리 후 이를 개발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KfW는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동독 지방자치단체 앞 직접대출의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함
 - 북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, 행정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한의 지자체에 대한 분석 및 지자체에 대한 대출 시스템의 적용 검토 필요
-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민관협력사업(PPP사업)의 조기 도입 필요
 - 독일 통일 당시에는 민관협력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으나 남북한 통일시는 이의 조기 도입이 가능
 - 북한 개발사업은 PPP형태로 추진하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균형을 이룬 자금공급 필요
- KfW는 인프라금융 업무시 초기에 정부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후기에는 높은 신용도 유지를 통하여 자체자금으로 업무 수행
 -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 창출을 기반 한 저리자금 조달 능력 제고를 위하여 KfW의 배당 및 과세 정책 참고 필요

11) 일원적 은행시스템(Mono-bank-system)이란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행과 관리 등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와 더불어 기업 여수신과 같은 상업은행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

【붙임 1】

KfW의 국내외 자본시장 차입내역

(단위 : 백만마르크, %)

| 구분 | '90 | '91 | '92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| '98 | 계 | 비중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
| 마르크시장 | 16,664 | 22,576 | 23,003 | 9,044 | 14,323 | 16,429 | 17,622 | 30,581 | 37,629 | 187,871 | 72 |
| - 유가증권 발행 | 10,790 | 18,567 | 20,340 | 7,261 | 8,737 | 9,289 | 6,365 | 10,933 | 15,100 | 107,382 | 41 |
| ·채권(bond) | 750 | 2,050 | 3,288 | 3,074 | 2,050 | 4,750 | 4,405 | 5,873 | 12,500 | 38,740 | 15 |
| ·증기채 및 무기명증서 (bearer bond) | 10,040 | 16,517 | 17,052 | 4,187 | 6,687 | 4,539 | 1,960 | 5,060 | 2,600 | 68,642 | 25 |
| - 부채증서 | 5,874 | 4,009 | 2,663 | 1,783 | 5,586 | 7,140 | 10,960 | 19,255 | 21,723 | 78,993 | 30 |
| - 자체기금 조성 | - | - | - | - | - | - | 297 | 393 | 806 | 1,496 | 1 |
| 외화시장 | 2,114 | 4,723 | 4,807 | 5,885 | 7,112 | 6,348 | 7,557 | 8,413 | 25,841 | 72,800 | 28 |
| - 유가증권 발행 | 1,862 | 4,385 | 4,726 | 5,199 | 5,803 | 5,708 | 6,754 | 8,160 | 24,628 | 67,225 | 26 |
| - 부채증서 | 252 | 338 | 81 | 686 | 1,309 | 640 | 802 | 253 | 1213 | 5,575 | 2 |
| 합 계 | 18,778 | 27,299 | 27,810 | 14,929 | 21,435 | 22,777 | 25,179 | 38,994 | 63,470 | 260,671 | 100 |

자료 : KfW, Annual Report, 각 연도, 김명식(2001), '통독과정 중 독일재건은행의 역할' 재구성

【붙임 2】

초기, 중기, 후기 인프라금융 프로그램 상세내용

| 프로그램명 | | 내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기 | 지자체 대출 | <p>① (시행 배경) 통일 직후 연방정부는 KfW, DTA^{주1)}, BIB^{주2)}에 정부가 만든 “장기·저리”프로그램 시행을 지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시 기관</th> <th>담당분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KfW</td> <td>하수 및 하수도, 소음관리, 공기오염관리, 수압 기술 업무</td> </tr> <tr> <td>Deutsche Ausgleichsbank (DtA)</td> <td>폐기물관리, 에너지 절약 업무</td> </tr> <tr> <td>Berliner Industriebank(BIB)</td> <td>교통시설, 도시 재건, 병원, 노인과 장애인 시설 업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 1 : DTA(독일조정은행)은 '03년 KfW에 합병 주 2 : BIB은행은 '94년 Weberbank와 합병하여 민영화</p> <p>② (프로그램 조건) 연방정부가 금리 차액을 예산으로 업무 - 세 금융기관이 총 170억 마르크를 한도로 공동프로그램을 소진 - KfW는 ‘6.5%, 10년 고정금리’로 3년간 총 63.6억 마르크 지원 - ‘직접대출’ 방식으로 지원</p> <p>③ (채무자) 지방자치단체, 지자체 유관기관, 행정기관, 공공법인/기관,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사기업</p> | 지시 기관 | 담당분야 | KfW | 하수 및 하수도, 소음관리, 공기오염관리, 수압 기술 업무 | Deutsche Ausgleichsbank (DtA) | 폐기물관리, 에너지 절약 업무 | Berliner Industriebank(BIB) | 교통시설, 도시 재건, 병원, 노인과 장애인 시설 업무 |
| | | 지시 기관 | 담당분야 | | | | | | | |
| KfW | 하수 및 하수도, 소음관리, 공기오염관리, 수압 기술 업무 | | | | | | | | | |
| Deutsche Ausgleichsbank (DtA) | 폐기물관리, 에너지 절약 업무 | | | | | | | | | |
| Berliner Industriebank(BIB) | 교통시설, 도시 재건, 병원, 노인과 장애인 시설 업무 | | | | | | | | | |
| 중기 | KfW-지자체 대출 | <p>① (시행 배경) KfW는 정부의 요청으로 ‘지자체대출프로그램’에 대한 계속적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 - '94년 BIB가 사유화된 후 KfW는 기존 담당분야에 추가하여 ‘교통시설 개선’을 담당</p> <p>② (프로그램 조건) 연방정부의 금리지원 없이 시장금리로 책정 -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4년간 KfW는 약 5억 마르크 지원</p> | | | | | | | | |
| | Saxony-Anhalt 폐수 관리 | <p>① (시행 배경) 동독 연방주인 Saxony-Anhalt주의 낙후된 폐수시설 개선 ② (프로그램 조건) Saxony-Anhalt주 정부가 금리 차액 보전 - 6년간 3억 마르크 지원하였으며 6년간 19.8 백만 유로 지원</p> | | | | | | | | |
| 후기 | 사회 기반 시설 | <p>① (시행 배경) KfW는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신설 - 인프라자금은 학교시설 및 교통시설, 도시 개선, 병원시설 개선 위주로 구성</p> <p>② (프로그램 조건) KfW는 동독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재원을 저리로 제공 - 10년간('94년~'04년) 81억 유로 지원 - '95년 초기에는 동독에 국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'96년 서독과 통합 후 '97년 동독에만 금리를 절감하여 수요 급증</p> <p>③ (채무자) 지자체 유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인프라금융 대출 비중 증가로 PPP사업 등 지역사회업무가 민영화 시작</p> | | | | | | | | |

자료 : 산업은행

【붙임 3】

동독 국립은행의 해체와 재편도

| 통일 전 | | 통일 후 합병 과정 | | | 업무분야/ 기능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48 ~ '68 | '68 ~ '90 | '90.04.01 | '90.07.01 | 그 후 | |
| 도이체 노튼 은행 | 동독국립 은행('68) <14,717명> [지점221개, 사무소 115개] ¹²⁾ | 동독국립은행 | 베를린국립은행 <800명> | KfW('94)와 합병 <375> [본점 1 사무소 6개] | 중앙은행 : 융자기관, 교환결제 |
| | | | 독일연방은행 <750명> [지점 15개, 추후 매각] | - | 순수 중앙은행 : 발권업무, 통화관리 |
| | | 베를린너 슈타트뱅크(주) <1,017명> [부동산4개] | - | 베를린너 뱅크(주)('91) | 동베를린 지역 경제발전 |
| | | 도이체크레디트 뱅크(주) <12,078명> | 도이체뱅크와 합병 <8,500명> [지점 122개] | Deutsche Bank | 상업은행 기능 |
| | | | 드레스드너뱅크와 합병 [지점 72개] | Dresdner Bank | |
| | | | DVB Deutsche Verkehrsbank AG ¹³⁾ | Deutsche Verkehrsbank AG Berlin u. Frankfurt | |
| | | | - | DKB [부동산250개] /Bayerische Landesbank | |

<인원수> [지점수]
자료 : 산업은행

12) '90.03.31에 14,717 중 본점 소속 817명, 지역사무소에 1,830명, 지점에 12,070명이 소속

13) Deutsche Verkehrsbank AG는 2008년에 DVB Bank SE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현재 DZ-Bank-Group (신협중앙회) 소속으로서 운송금융을 위주로 항공, 도로, 해상운송에 대한 금융을 담당함